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12월 퇴직연금 적립금 큰 폭 증가

- 2009년 12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삼성전자,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신규가입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35.9% 증가한 3조 7,107억 원을 기록함.
  - 대기업 신규가입 증가로 계약건수는 소폭 증가한데 비해 가입자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, 계약건수와 가입자수는 전월대비 각각 6.3%, 44.0% 증가한 80,752건, 2,480,993명으로 나타남.
  - 기업규모별 계약현황은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이 전월에 비해 22.5% 증가하였으며 중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각각 8.0%, 3.9% 증가함.
  -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의 적립금 비중이 48.5%로 전월의 54.2%에 비해 5.7%p 감소한 반면, 생명보험 적립금 비중은 전월대비 5.3%p 증가한 33.5%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권의 비중도 소폭 증가함.
  - 은행권의 적립금 비중은 2009년 6월 처음으로 50%를 상회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50%를 하회함.
  
-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신규계약 중 대부분을 차지한 DB형의 12월 적립금 비중은 71.7%로 전월에 비해 5.9%p 증가함.
  - 대부분의 대기업이 DB형 단독으로 제도를 도입하거나, DB형과 DC형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DC형 선택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.
  
- 운용방법별로는 신규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들이 안정자산 투자를 선호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85.3%로 나타났으며, 그 중 예금상품이 52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.
  - DB형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91.1%로 타 제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, 시중금리보다 퇴직연금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퇴직연금운용담당자의 리스크 회피적인 투자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(퇴직연금 영업실적('09.12월말), 금융감독원, 1/20)